청소기 거래하려다 피싱 링크 눌러서 인생 조질 뻔함

진짜 나 이런 일 생길 줄 몰랐음... 아직도 생각하면 손에 식은땀이 남... 어지간한 일엔 화도 잘 안 나는 편인데, 이번엔 너무 어이없고 무서워서 처음으로 이런 후기 씀.

사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데서 시작했음. 얼마 전에 무선 청소기 하나 필요해서 중고나라 들어갔거든. 일단 새거 살 예산은 없고, 그렇다고 아무거나 사고 싶진 않아서 모델이랑 상태 좀 따져보다가 괜찮은 매물 하나 발견했음. 제품 사진도 잘 찍혀 있고, 구성품도 다 있고, 설명도 성의 있게 돼 있어서 좀 믿음이 갔음. 그래서 연락했지.

근데 이 사람 말투도 부드럽고 응대도 빠르고, 뭐랄까 중고 거래 많이 해본 사람 느낌이었음. 그래서 그냥 쭉 얘기하면서 별 의심 없이 거래 진행하려고 했음.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음. 나보고 '요즘 중고나라 사기 많으니까 안전결제 쓰자'고 하더니 링크를 하나 보내더라? 그게 처음엔 그냥 중고나라 결제 시스템처럼 보였음. 사이트 들어가면 내 정보 입력하라고 나오고, 제품 정보도 떠 있었고... 근데 뭔가 이상하긴 했지. 딱 그 느낌 있잖아. 너무 매끈한데 뭔가 미묘하게 이질적인 그 느낌. 특히 주소창 보면 알 수 있는데, 뭔가 이상하게 꼬여 있음. 딱 봐도 정식 도메인 아니고, 중간에 영어랑 숫자 섞인 복잡한 주소였음. 거기서부터 찝찝함이 몰려왔고, 순간적으로 '아 이거 아닌데...' 싶었음.

그래도 내가 뭐 잘못 눌렀나 싶어서 몇 번 더 확인하고, 아예 다른 브라우저로 검색해봤는데... 공식 중고나라엔 그런 시스템이 없더라. 그냥 사용자끼리 계좌로 하거나 현장 거래 권장한다고만 돼 있음. 뭔가 사기 당한 후기들도 많이 보였고, 점점 등골이 서늘해졌지. 그 와중에 대화창에선 계속 '왜 결제 안 하시냐', '이거 시간 지나면 자동 취소된다' 이런 식으로 압박 들어오는 거임. 내가 갑자기 반응 줄이니까 말투도 살짝 바뀌고, 이상하게 재촉하기 시작함. 그때 진짜 확신이 들었음. 이거, 걸렸다.

그 순간 먹튀위크라는 이름이 문득 떠올랐는데, 예전에 누가 사기 정보 정리 잘돼 있다고 했던 거 생각나서 찾아 들어감. 진짜 신의 한 수였음. 거기서 유사한 사례들이 정리돼 있었고, 심지어 이 방식 그대로 쓴 피해자들도 있었음. '중고나라 안전결제 사칭', '가짜 결제창 링크 유도', '네이버페이, 번개장터, 당근 등으로 위장된 페이지 사용' 이런 키워드로 정리돼 있었고, 실제 피해자들 경험도 올라와 있어서 내가 당하려던 수법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음. 너무 소름 끼쳤던 건, 그 링크 화면이랑 내가 본 화면이랑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았다는 거... 거기 들어가서 **아니**

었으면 진짜 로그인 누르고 각종 정보 다 넘겼을지도 모름.

거기 나온 사례 중에 한 명은 진짜 그 링크 눌렀다가 자동으로 뭔가 깔리면서 폰도 이상해지고, 나중엔 금융 앱에서도 알림 이상하게 왔다고 하더라. 그거 보고 완전 정신 번쩍 들었음. 그때 나도 폰으로 하고 있었거든. 심지어 집 와이파이 연결된 상태로.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찔함.

이후에는 바로 상대방 차단하고, 커뮤니티에 공유글 남기고, 사이트에도 신고함.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냐. 그런 사람들, 신고해도 금방 아이디 바꿔서 다시 나타남. 같은 제품 사진 돌려쓰거나, 설명만 살짝 바꾸고 또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찾더라. 그래서 결국 내가 느낀 건, 개인이 그냥 감으로만 이걸 거르긴 너무 어렵다는 거임. 시스템 자체가 너무 정교하고, 평소에 이런 사례 안 접하면 의심도 안 든다는 게 문제임.

그런 면에서 먹튀위크처럼 사례 모아서 정리해놓은 데가 진짜 꼭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낌. 주소는 여기임 단순히 "이 사이트 조심하세요" 수준이 아니라, 대화방식, 링크 방식, 실제 공격 포인트까지 정리돼 있어서 내가 뭘 보고 피해야 할지를 알 수 있었음. 그거 없었으면 나도 그냥 '에이 설마…' 하다가 진짜 큰일 날 뻔했지.

결론은 이거임. 중고거래라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됨.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음. 진짜 네이버도, 진짜 중고나라도 다 카피해서 만든 피싱 페이지가 돌아다니는 시대임.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, 뭔가 '친절하다'고 느껴지면 더 의심해야 됨. 주소창 확인하고, 이상하면 무조건 닫고, 정 모르겠으면 검색부터 해봐야 함. 나처럼 피할 수 있는 기회 있었는데 못 잡으면, 그다음엔 진짜 골치 아파짐.